

#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과 생활적응 관련변인

A study of The elderly's decision-making and life-adjustment in the family Its Related Variables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교 수 지 금 수  
전북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김 현 지

Dept. of Home Management, Chonbuk National Univ.

Prof. : Keum Soo, Chi

Dept. of Home Economics Graduate School, Chonbuk National Univ.

Master : Hyoun Ji, Kim

##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및 해석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gree of influence on the elderly's life adjustment and decision making in the family.

For these research tasks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terview. the respondents were 296 of man and woman elderly who lived in JeonJu. It was analyzed by various statistical methods such as Frequency, Percentile, ANOVA, correlate, t-tes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finding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Decision-making of the elderly in family ha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rea of sex, the sum of monthly personal expenses, satisfaction level of personal expenses, subjective economic level and self-esteem in the order named.

2) Elderly life-adjustment ha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rea of the residential district, the present job, the situation of a apouse, religion, education, the sum of the monthly personal expenses, health, satisfaction level of personal expenses,

subjective economic level and self-esteem.

3) When we observe relationship with the elderly decision-making in family and life-adjustment, relation decision-making in family and life-adjustment appeared positively.

4) Decision-making of the elderly in family had th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variables such as sex, the sum of monthly personal expenses, and self-esteem in the order named, and the most influential factor among them was sex.

5) Elderly life-adjustment had th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variables such as self-esteem, decision-making, religion, health, the sum of the monthly personal expenses, the residential district in the order named. the most influential factor was self-esteem and the explanatory of those variables for the elderly life-adjustment was 55.1%.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우리는 현대적 생활의 편리함 속에서 비교적 윤택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에 의한 도시화와 가족구조의 변동 및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출산율과 사망률의 저하, 평균 수명의 연장에 의한 인구의 노령화는 노인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는 가족의 이동과 더불어 세대간의 분리를 야기시켜 종래의 가부장적 가족 또는 직계가족을 부부중심의 핵가족으로 소형화시켰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게된다. 즉,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냉철한 현실에 대처하여 적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듯 고령자들의 사회적 위치가 불확실해지고 역할이 상실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의 가정내 지위와 역할에 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며, 특히 이들이 처해있는 개인적, 사회적 변화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내의 변화들에 대해 적응을 해나가야만 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늙게 되고 노령으로 인해 능력의 한계, 건강의 약화, 그리고 정신적 힘의 쇠퇴 등의 개인적인 문제 뿐 아니라 직업적 지위의 상실 그리고 사회적 역할의 상실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우리의 전통사회에서 노인은 가족내의 연장자, 가사결정자로서의 권위와 역할을 가지고 실권자의 위치를 가정일에서 지켜왔다. 남자노인은 가부장적 지위와 역할을 가졌었고 여자노인은 가계의 지위와 가풍전달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김애련, 1990). 그러나 기계문명의 발달과 생활양식의 급변은 지금까지 노인이 가진 장점으로써 존중되어온 생활의 지혜와 경험을 가정적, 사회적으로 쓸모 없는 것으로 전락시켰고 노년층에게는 자신의 위치, 권력, 지위등 사회적 관계와 역할의 변화 및 혼란 속에서 부적응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노인의 지위하락현상은 가정내 권력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이것은 가정내의 의사결정에 반영되고 노인의 의사결정권 행사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홍기정, 1984). 즉 가정운영의 기능적 변동은 노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시켰는데, 이러한 현상들은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의 권력저하문제와 관련하여 한국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권을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연구(박재간·임춘식, 1983; 모선희, 1991, 오건작, 1991)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볼 때 제반 가정문제의 결정권을 소유하고 있었던 전통사회의 노인에 비하여 현대사회의 노인은 그 지위가 크게 격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노인의 기혼자녀와의 동거율이나 동거기대가 매우 높은 우리 나라의 경우 이러한 노인의 사회적, 가정적 지위하락이나 권력의 상실 문제는 구

미 선진국의 노인에 비해 더욱 심각할 것이다.

기존의 노인대상 연구들은 노인의 문제를 노인집단의 단순한 실태조사나 생활만족도, 노인부양, 노인복지들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하였고,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수준과 생활적용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노인의 의사결정에 근거하여 노인의 생활에서의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을 중심으로 노인의 의사결정과 생활적용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관련변인이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과 생활적용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서 노인의 생활적용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심리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노인의 생활적용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심리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과 생활적용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4〉 관련변인이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5〉 관련변인이 노인의 생활적용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

의사결정이란 많은 행동과정 중에서 자신이 취할 행동을 선택하는 것으로서 관리의 핵심요소이며, 가정관리에 있어서 정신적, 지적활동으로서 관리 자체의 존재를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의사결정은 가족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각 가족원에게 인간적인 성장과 개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김윤경·임정빈, 1983)

Deacon과 Firebaugh(1988, p63)는 대안의 선택이나

해결을 할 때 평가하는 과정으로서, 의사결정은 모든 가정자원관리 기능의 기초가 되는 근본적인 과정이라고 했다. Rice와 Tucker(1986)는 사람들이 여러 대안 중에서 선택을 할 때마다 일어나는 것으로서 비록 작은 의사결정이라도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노인을 연구대상으로 가정내 의사결정을 다룬 국내 및 국외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나 국내의 경우 일반적인 노인에 관한 연구내에서 노인의 의사결정권이나 역할, 권력, 지위를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고, 국외연구는 노인부부중심의 연구(Dorfman & Heckert, 1988, p76; Dorfman & Hill, 1986), 자녀에게 부양을 의존하고 있는 노인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Pratt, Jones, Shin & Walker, 1989, p795-796)가 있다.

실제로 행해진 가족내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들은 가족성원간에 존재하고 있는 상이한 역할 및 가족내의 권력구조와 아울러 중요한 사항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가족 내에서 결정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있다.

국내 노인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 스스로 경제력이 있는 가정에서는 노인의 의사결정권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비하여 노인자신이 경제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박재간·임춘식, 1983). 여운경(1993)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의사결정유형과 의사결정과정의 참여도는 젊은 자녀부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생활비를 자신이 부담하는 자립적인 노인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영향력을 더욱 많이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주은(1993)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있고 건강이 좋을수록,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좋을수록 노인중심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행사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현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출산율의 저하와 노령인구의 증가로 기혼자녀를 둔 노부모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특히 자녀가 경제적으로

나 육체적으로 독립시기에 있는 60대의 노인같은 자원을 소유한 권력있는 노부모가 가정내 거주하는 현실로 인해 노부모와 기혼 자녀간에는 부부와 마찬가지로 의사결정행동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 2. 노인의 생활적응

적응이란 자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환경의 요구도 충족시켜 주는 능력을 말한다. Herzog와 Rodgers (1981)는 노인들의 심리적인 적응과정의 결과로서 생활만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으며 심리적인 적응에는 적응의 동기로서 가치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원만한 노년기의 생활적응에 관하여 Havighurst(1962)는 1) 체력과 건강의 쇠퇴기에 대한 적응 2) 은퇴와 감소된 수입에 대한 적응 3) 배우자의 사망에 대한 적응 4) 동년배 집단과 친근한 관계유지 5) 사회적·시민적 의무의 감당 6) 안락한 생활의 정돈 등을 들고 있다(서병숙, 1991 :86-87, 재인용)

적응을 잘하는 사람은 개인적, 상황적 요구들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잘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라 해서 여러 생활상의 문제들이나 우울감등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것들은 정상적인 생활의 일부분으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생활적응은 자기자신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한다. 즉 자기자신에 대해 자신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변화할 수 있는 것과 변화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다(이영은, 1990).

노년기에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 Clark와 Anderson (1967)은 노인들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인생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는 고령화에 대한 인지와 자신의 능력의 한계나 감소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 둘째는 노년기에 처한 자신의 물리적 또는 사회적 활동범위에 관한 새로운 개념정의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셋째는 개인생활의 욕구만족을 위해 새로운 활동이나 취미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 넷째는 자아평가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고 자아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것,

다섯째로는 자신의 인생관과 목적의식을 재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노년기에 맞는 인생의 목적을 재확인하거나 정하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결국 노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파악하고 나아가서 자신의 이미지나 정체감을 재확립함으로써 변하는 환경에 적응을 할 수 있을 때 말년을 만족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렇듯 적응은 상황의 변화에 따르는 일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노년기의 적응은 물리적 환경보다도 내적 만족에 의하여 더욱 더 좌우된다(오경숙, 1990). 그러나 우리 나라의 노인들은 오늘의 성인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고 직업적 경험이 풍부하지 못하여 변화가 빠른 현대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적응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강주령, 김명자(1991)는 노인적응에 관련된 배경변인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이 좋을수록, 경제적으로 자녀에 의해 도움을 받는 여자노인이 노년기 적응이 좋다고 하였다. 여자노인의 전반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평가가 적응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노년기 가족관계는 적응과 관련 있다고 하였다. 오경숙(1990)은 노인의 활동정도가 많을수록 적응수준이 높고 특히 친밀활동과 단체활동이 노후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다음은 노인의 생활적응을 개인, 가족, 사회생활적응으로 구분하여 각 하위영역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개인생활적응

개인은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에 수반되는 신체적 기능 쇠퇴와 신체 조직의 균형상실에 적응해야 한다. 노년기에는 소화기능, 기초대사율, 세포의 재생 및 호흡기능이 감퇴되고 수면시간이 줄어들며 혈액순환이 둔화된다(윤진, 1985) 그러므로 노년기에 처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나간 인생의 발자취를 잘 정리하여 세상을 보람있고 뜻있게 살아가는 자부심 속에서 말년을 동요없이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손양숙, 1985)

### 2) 가족생활적응

가족은 복지추구에 가장 기본이 되는 집단으로서 노인에게 중요한 생활의 장이 되며,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는 다른 어떤 대면적 관계에서보다도 노년기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대부분의 노인들이 전 생애를 통해 형성되어진 가족 안에서 생활하며 계속적인 도움을 기대하게 되므로 다른 어느 집단에서보다도 가족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이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수연, 1987).

### 3) 사회생활적응

친구와 이웃은 노년기에 있어서 1차적 관계의 중요한 대상이 되며 자아개념을 재정립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가족 이외의 주요 지지기반으로 작용한다. Aizenberg(1977)는 노인들의 생활만족과 행복이 친구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밝히고 친구는 현대사회에서 대리가족성원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노년기 가족부양의 결함을 대신하기도 한다고 지적하였다(오경숙, 1990 : 10, 재인용).

## 3.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 및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 1) 사회인구학적 변인

#### (1) 성별

노인의 생활만족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결과(Liang, 1982; 김태현, 1986)가 있는 반면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김명자, 1982)도 있다. 이러한 여자노인들의 낮은 생활만족도는 자녀가 독립하고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어머니로서의 역할감소나 역할상실로 인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갈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 (2) 직업

직업유무는 지위와 관련하며 노인이 처해있는 경제적 여건은 노인의 여러 생활영역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한임섭(1987)은 취업하고 있는 노인이 경제적 자립을 하고 있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였다. 또한 과거직업이 은퇴후 생활전

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직업은 가정내의 의사결정과 관계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 (3) 학력

박충선(1990)은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결론을 보이는 동시에 교육정도보다 교육유무에 따라 생활만족도가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노인의 학력이 높을수록 의사결정권이 높게 나타난 연구(모선희, 1991)에서 교육수준과 의사결정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종교

종교생활은 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비공식적 지지기반으로서 노인이 겪는 배우자 상실이나 소외, 고독, 죽음의 두려움 등의 정신영역에 위안을 줄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교적 믿음이나 활동은 노인의 고독이나 고립감을 완화시켜주고 정서적 안정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변인이 될 수 있다(김태현, 1994). 또한 종교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중요한 심리적·사회적 기능을 함을 시사하므로 노인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된다.

#### (5) 배우자유무

배우자 유무는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데 Olson(1976)의 연구에 의하면 홀로된 여자노인의 가정권력은 배우자가 있는 여자노인보다 낮게 나타났고 모선희(1991)의 연구에서도 배우자와 동거하는 노인일수록 가정내 의사결정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6) 거주지역

거주지역은 노인의 기거, 숙취, 휴식등 제반생활의 중심부가 되는 곳이므로 직접·간접으로 노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김상규, 1983). 우리나라의 경우 대개 단독주택보다 아파트가 생활에 편리하게 되어 있어 노인들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유지에는 더욱 편리하다(최혜경, 1984). 이러한 생활의 편리화와 관련한 거주지역은 생활적응과 관계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 (7) 한달용돈액수

노인의 소득은 직업유무에 따라 다르며, 특히 여자노인의 경우는 그 소득을 배우자에게 의존하기 때

문에 이를 대용할 소득지표가 요구된다. 이러한 지표로서는 여자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유무 및 액수, 용돈의 액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노인들은 자신의 생활비와 용돈을 자녀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김태현, 1981; 임종권 외, 1985) 이것은 가정내 노인의 지위하락과 의사결정권의 약화를 수반하게 되는 요소로서 볼 수 있다.

## 2) 심리적 변인

### (1) 주관적 경제생활수준

노년기의 경제상태는 실제적인 소득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지각하는 주관적 경제만족도도 노년기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이춘희, 1993). 경제상태에 따른 생활만족 여부를 보면 대체로 소득이 높으면 생활만족도도 높게 나타나며(Kalish, 1975; 최혜경, 1985),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하여 자신의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저하시킬 수 있다(Memmack & Roff, 1984).

### (2) 건강상태

노년기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은 개인·사회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로서 노년기에 영향을 미치며, 건강이 좋을수록 세대간의 유대관계도 높다(최혜경, 1984). 실제상의 건강상태보다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에 대한 만족이 노년기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노인의 건강은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권과 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모선희, 1991), 특히 Pratt(1989)의 연구에 의하면 홀로된 여자노인의 건강상태가 나빠지면 딸의 의사결정 영향력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좋은 건강상태는 노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자원이 됨을 알 수 있다.

### (3) 용돈만족수준

한달용돈액수와 마찬가지로 이 액수에 대한 만족을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적인 용돈의 경우뿐만 아니라 노인이 지각하는 만족도도 노년기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 (4) 자아존중감

Rice와 Tucker(1986)는 자아존중감은 의사결정의 행동과 관계가 있어, 현실주의적이고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를 명확히하고 그것의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반면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생활을 두려워하고 이 두려움은 사고를 방해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과 생활적응에 있어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과 생활적응간의 관계

노인의 의사결정과 생활적응에 관한 기존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나 부부간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에서 현명한 의사결정이 부부의 생활만족을 증진시키며, 인간중심적인 의사결정이 가정생활 만족도를 증진시킨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임정빈, 1988). 한 임섭(1987)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노인의 경우는 가정내의 의사결정권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으나, 경제력이 없는 노인은 가정생활에 대한 그들의 권한을 포기한 채 자녀들에게 부양받고 있는 자신의 생활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송주은(1993)의 연구에서 가정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노인을 중심으로 행사될 경우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았다고 하였다.

이는 노인의 가정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기존의 각 변인과 생활만족도를 연결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정내 의사결정과 생활적응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60세~69세 남녀노인이며 전주시 28개동에 거주하는 노인의 수에 비례하여 할당표집방법<sup>1)</sup>에 의해 선별하였다.

1) 전주시 통계연보(1998)를 참고로 하여 전주시에 거주하는 60세~69세 노인의 1% 인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는 1997년 12월 31일의 기준 자료이다.

본 조사에 앞서 1999년 5월 24일~5월 29일까지 전주시 거주노인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 결과분석후 설문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를 위해 3명의 훈련받은 대학원생이 1999년 7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남녀노인을 대상으로 총 300부의 설문조사를 개별면접조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그 중 내용이 부실한 설문지와 응답의 신뢰성이 의심되거나 불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설문지를 제외한 최종 296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1) 심리적 변인 측정도구

심리적 변인은 노인의 건강상태, 용돈만족수준, 주관적 경제생활수준, 자아존중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단일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용돈에 대하여 만족하며, 경제생활수준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은 이영자(1996)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긍정형 6문항과 부정형 4문항으로 총 10문항을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부정

<표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사회인구학적변인	성별	남자	127(42.9)	동거가족형태	혼자서 산다	23(7.8)
		여자	167(57.1)		배우자와만 산다	102(34.7)
	현재직업	단순직	23(7.8)		아들가족과 산다	64(21.8)
		중급직	42(14.2)		딸 가족과 산다	11(3.7)
		전문직	11(3.7)		미혼자녀와 산다	90(30.6)
		무직	219(74.2)		기타(손자녀와 산다, 친척과 산다)	4(1.3)
	학력	무학	26(8.8)	배우자	유	228(77)
		한학이나 서당	5(1.7)		무	68(23)
		국졸(국퇴)	90(30.5)	거주지역	아파트	109(36.8)
		중졸(중퇴)	52(17.6)		주택	187(63.2)
고졸(고퇴)	71(24.1)	한달용돈액수	10만원미만	16(5.7)		
전문대졸이상	51(17.3)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51(18.1)		
종교	무종교		75(25.5)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61(21.7)	
	개신교		107(36.4)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62(22.1)	
	천주교		42(14.3)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17(6.0)	
	불교		60(20.4)	50만원 이상	73(26.0)	
	원불교	8(2.7)	따로 없다	1(0.4)		
	유교	2(0.7)	용돈수준	만족	112(37.6)	
심리적 변인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	상		29(9.8)	보통	114(38.6)
		중		232(78.6)	불만족	70(23.7)
		하	34(11.5)	자아 존중감	높음	80(27.9)
건강 상태	좋은편	162(54.9)	보통		122(42.5)	
	보통	61(20.7)	낮음		85(29.6)	
	나쁜편	72(24.4)				

\* 통계결과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은 자녀 동거 유무는 제외하였음

문항을 역산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뢰계수는 .79로 나타났다.

### 2)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 측정도구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을 측정하기 위해서 송주은(1993), 여윤경(1993), 유주희(1993)등의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가정내 의사결정 영역을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가정경제, 가족행사 및 일반생활, 자녀문제, 손자녀양육등의 7개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의생활 2문항, 식생활 3문항, 주생활 3문항, 가정경제 3문항, 가족행사 및 일반생활 5문항, 자녀문제 4문항, 손자녀양육 3문항으로 총 2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항상 내가 결정한다' 3점, '때때로 내가 결정한다' 2점, '전혀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 1점으로 점수의 범위는 23점에서 69점까지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내 의사결정수준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뢰계수는 .83으로 나타났다.

### 3) 생활적응 측정도구

노인의 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오경숙(1990)의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하였으며 생활적응 영역을 개인생활적응, 가족생활적응, 사회생활적응등의 3개영역으로 구분하고 각각 7문항씩 총 2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적응수준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활적응의 신뢰계수는 .91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 각각 개인생활적응은 .80, 가족생활적응은 .81, 사회생활적응은 .76으로 나타났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WIN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Cronbach's  $\alpha$ , t-test, ANOVA, 상관관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관련변인에 따른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

<연구문제 1>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심리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관련 변인에 따른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은 다음 <표 2>와 같다.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서는 성별( $p < .01$ ), 한달용돈액수( $p < .01$ ), 심리적 변인에서는 용돈만족수준( $p < .01$ ), 주관적 경제생활수준( $p < .01$ ), 자아존중감( $p < .05$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가정내 의사결정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용돈액수는 10만원 미만 집단보다 40이상~50만원 미만 집단과 50만원 이상 집단의 의사결정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용돈만족수준에서는 불만족 집단보다 만족집단과 보통집단의 의사결정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생활수준은 상, 중, 하집단 모두 가정내 의사결정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송주은(1993)의 연구와 유사하였으며 경제적인 자원을 많이 소유할수록, 이러한 소유에 만족할수록, 자신의 경제적 자원을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가정내 의사결정 행사에 많이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보통이거나 낮은 집단에 비해 의사결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변인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결과는 Hill 과 Scanzoni (1982), 여윤경(1993)의 연구와 유사한 경향이며 노인의 경제적 자원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자원 역시 의사결정권 행사를 좌우하는 것을 나타내며 심리적 자원을 비롯한 비경제적 자원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표 2〉 관련변인에 따른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

(N=289)

변인	구분	평균 / D	F / t값	변인	구분	평균 / D	F / t값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별	남	1.88	-3.063**	거주지역	아파트	1.92	-0.683
		여	1.99			주택	1.95	
	현재직업	단순직 중급·전문직 무직	2.02	1.474	종교	유	1.96	1.732
			1.99			무	1.89	
			1.92		배우자	유	1.95	0.751
		무	1.91					
	학력	무학 국졸(서당과 한학포함) 중졸(중퇴) 고졸(고퇴) 전문대졸 이상	1.92	0.312	한달 용돈 액수	10만원미만	1.74 A	4.073**
			1.93			10이상~20만원 미만	1.85 AB	
			1.91			20이상~30만원 미만	1.93 BC	
			1.96			30이상~40만원 미만	1.91 BC	
1.97			40이상~50만원 미만			2.05 C		
	50만원 이상	2.04 C						
심리적 변인	건강상태	좋은편	1.97	1.637	용돈 만족 수준	만족	1.97 B	4.926**
		보통	1.94			보통	1.97 B	
		나쁜편	1.88			불만족	1.84 A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	상	2.09 C	6.630**	자아 존중감	높음	2.02 B	3.339*
		중	1.94 B			보통	1.91 A	
		하	1.80 A			낮음	1.92 A	

\* p<.05 \*\* p<.01

\* D = Duncan

2. 관련변인에 따른 노인의 생활적용

〈연구문제 2〉 노인의 생활적용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심리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관련 변인에 따른 노인의 생활적용은 다음〈표 3〉과 같다.

노인의 전체생활적용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서는 거주지역(p<.05), 현재직업(p<.001), 배우자 유무(p<.001), 종교유형(p<.01), 학력(p<.001), 한달용돈액수(p<.001), 심리적 변인에서는 건강상태(p<.001), 용돈만족수준(p<.001), 주관적 경제생활수준(p<.001) 및 자아존중감(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각 변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주지역의 경우 아파트 거주노인이 주택 거주노인보다 전체생활적용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인간적인 측

면에 대한 인식에 비해 우리 나라의 경우 아파트의 생활이 편리하게 되어 있고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유지의 편리함으로 인해 생활적용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현재 직업은 단순직과 무직의 집단에 비해 중급·전문직 노인의 생활적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직업지위는 경제적 자원으로 작용하고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적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김태현(1986)과 오경숙(1990)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이다.

배우자 유무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생활적용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집단의 적응수준이 높게 나타난 오경숙(1990)의 연구와 일치하며, 노년기는 그 어느 가족주기보다 부부관계와 동료감이 중요한 시기로 홀로 된 노인은 함께 살면서 느껴지는 인생의 의미, 목표

〈표 3〉 관련변인에 따른 노인의 생활적응

변인	구분	개인생활적응(N=290)		가족생활적응(N=294)		사회생활적응(N=293)		전체생활적응(N=288)		
		평균 / D	F / t값	평균 / D	F / t값	평균 / D	F / t값	평균 / D	F / t값	
사회인구학적변인	성별	남	3.73		4.03		3.75		3.84	
		여	3.58	2.004*	4.01	0.332	3.68	1.002	3.76	1.353
	거주지역	아파트	3.72		4.10		3.79		3.88	
		주택	3.60	1.601	3.97	2.138*	3.67	1.787	3.75	2.084*
	현재직업	단순직	3.54	A	3.89	A	3.56	A	3.66	A
		중급·전문직	3.98	B	4.29	B	4.02	B	4.09	B
		무직	3.57	A	3.97	A	3.66	A	3.74	A
	배우자	유	3.74		4.07		3.75		3.86	
		무	3.36	4.674***	3.85	2.988**	3.57	2.314*	3.59	3.866***
	종교	유	3.70		4.07		3.77		3.85	
		무	3.49	2.514*	3.87	2.873**	3.54	3.083**	3.65	2.942**
	학력	무학	3.35	A	3.85	A	3.62	A	3.61	A
		국졸(서당과 한학포함)	3.56	AB	3.96	A	3.59	A	3.71	AB
		중졸(중퇴)	3.53	AB	3.99	A	3.74	AB	3.77	AB
		고졸(고퇴)	3.71	B	4.04	AB	3.73	AB	3.83	B
전문대졸 이상		3.99	C	4.23	B	3.94	B	4.05	C	
현달용돈액수	10만원미만	3.30	A	3.72	A	3.15	A	3.40	A	
	10이상~20만원미만	3.49	AB	3.90	AB	3.57	B	3.66	B	
	20이상~30만원 미만	3.49	AB	3.97	AB	3.56	B	3.68	B	
	30이상~40만원 미만	3.67	BC	3.98	AB	3.74	B	3.80	B	
	40이상~50만원 미만	3.73	BC	4.03	BC	3.82	BC	3.86	BC	
	50만원 이상	3.91	C	4.25	C	4.05	C	4.07	C	
용돈만족수준	만족	3.82	C	4.14	B	3.88	B	3.95	C	
	보통	3.63	B	4.00	B	3.67	A	3.76	B	
	불만족	3.38	A	4.14	A	3.51	A	3.59	A	
건강상태	좋은편	3.85	C	4.08	B	3.87	C	3.94	C	
	보통	3.53	B	3.97	AB	3.54	B	3.69	B	
	나쁜편	3.27	A	3.89	A	3.47	A	3.54	A	
주관적경제생활수준	상	3.93	C	4.19	B	4.06	C	4.06	C	
	중	3.66	B	4.04	B	3.71	B	3.81	B	
	하	3.29	A	3.72	A	3.41	A	3.48	A	
자아존중감	높음	4.08	C	4.39	C	4.11	C	4.19	C	
	중간	3.64	B	4.01	B	3.69	B	3.78	B	
	낮음	3.27	A	3.69	A	3.38	A	3.46	A	

\* \* p&lt;.05 \*\* p&lt;.01 \*\*\* p&lt;.001

\* D = Duncan

들을 얻기 어려우므로 적응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교의 경우 종교가 있는 노인의 생활적응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집단의 적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김태현(1994)과 김명자(1982)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이

며, 또한 노년기의 신앙생활은 노인의 고독이나 고립감을 완화시켜주고 정서적 안정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학력은 무학 집단에 비해 고졸이상집단의 생활적응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졸이상집단

보다 전문대졸이상집단의 생활적용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노인의 생활적용수준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적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이남표(1979)와 오경숙(1990)의 연구와 일치한다. 노인의 높은 교육수준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의 증가로 사회적 지위를 증대·유지시킬 수 있어 노인의 적용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달용돈액수는 10만원미만 집단보다 20만원이상 집단이, 40만원 미만집단보다 50만원 이상의 집단이 생활적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돈만족수준의 경우 만족집단이 보통집단보다, 보통집단이 불만족 집단보다 생활적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생활수준에서도 상, 중, 하의 순으로 생활적용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 스스로가 느끼는 경제적 만족도가 노년기 적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난 Medley(1977)와 유사한 경향이며 스스로 느끼는 경제적 만족도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건강상태는 좋은편, 보통, 나쁜편의 순으로 생활적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일수록 적용수준이 높게 나타난 연구(Edwards, 1973; McClelland, 1982; Quinn, 1983; 오경숙, 1990; 최해경, 1984; 김수연, 1987)와 유사한 경향이며 노인의 건강은 다른 연령보다 생리적 적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때 그들의 건강상태가 좋은 편일수록 생활적용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에서도 높음, 보통, 낮음의 순으로 생활적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노인의 생활적용의 하위영역별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노인의 개인생활적용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서는 성별(p<.05), 현재직업(p<.001), 배우자 유무(p<.001), 종교유형(p<.001), 학력(p<.001), 한달용돈액수(p<.001), 심리적 변인에서는 건강상태(p<.001), 용돈만족수준(p<.001), 주관적 경제생활수준(p<.001) 및 자아존중감(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노인의 가족생활적용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서는 거주지역(p<.05), 현재직업(p<.001), 배우자 유무(p<.01), 종교유형(p<.01), 학력(p<.05), 한달용돈액수(p<.001), 심리적 변인에서는 건강상태(p<.05), 용돈만족수준(p<.01), 주관적 경제생활수준(p<.01) 및 자아존중감(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001), 심리적 변인에서는 건강상태(p<.05), 용돈만족수준(p<.01), 주관적 경제생활수준(p<.01) 및 자아존중감(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노인의 사회생활적용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서는 현재직업(p<.001), 배우자 유무(p<.05), 종교유형(p<.01), 학력(p<.01), 한달용돈액수(p<.001), 심리적 변인에 따라 건강상태(p<.001), 용돈만족수준(p<.001), 주관적 경제생활수준(p<.001), 기대수명(p<.01) 및 자아존중감(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3.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과 생활적용의 상관관계

〈연구문제 3〉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과 생활적용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과 생활적용간의 상관관계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표 4〉와 같다.

〈표 4〉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과 생활적용간의 상관관계

(N=283)				
생활적용 의사결정	개인생활 적용	가족생활 적용	사회생활 적용	전체생활 적용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	.35***	.34***	.30***	.30***

※ \*\*\* p<.001

〈표 4〉와 같이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과 개인생활적용, 가족생활적용, 사회생활적용, 전체생활적용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이들간에 정적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은 개인, 가족, 사회등 전반적인 생활적용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경영에 대한 노인의 의사결정권이 생활만족도의 증감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송주은(1993)의 연구와 일치했다. 따라서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을 통해 가족간의 근본적인 이해와 대화로 생활적용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 4.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문제 4〉 관련변인이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표 2〉의 차이검증에서 유의한 차이가 검증된 관련변인을 중심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

설명변수	가정내 의사결정(n=271)	
	b	$\beta$
성별 <sup>a</sup>	-3.776	-.255***
한달용돈액수	1.055	.230***
용돈만족수준	.402	.052
주관적 경제생활수준	1.661	.118
자아존중감	.214	.146*
Constant	28.222	
R <sup>2</sup>	.167	
F	10.526***	

※ \* p<.05 \*\*\* p<.001

※ a : 가변인 : 성별 기준 : 여자노인 비교 : 남자노인

〈표 5〉에 의하면 노인의 의사결정수준은 성별( $\beta = -.255$ ), 한달용돈액수( $\beta = .230$ ), 자아존중감( $\beta = .146$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중 성별이 가장 예측력이 큰 변인이었으며 이들 3개 변인의 설명력은 16.7%이었다. 즉 성별이 여자노인인 경우, 한달용돈액수가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여자노인이, 경제적 자원이 많을수록 가정내의 의사결정에 있어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5. 노인의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문제 5〉 관련변인과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이 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표 3〉에서 유의한 차이가 검증된 관련변인과 의

사결정을 중심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에 의하면 노인의 전체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 $\beta = .435$ ), 의사결정( $\beta = .230$ ), 종교유무( $\beta = .178$ ), 건강상태( $\beta = .135$ ), 한달용돈액수( $\beta = .135$ ), 거주지역( $\beta = .086$ )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의사결정수준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한달용돈액수가 많을수록, 아파트거주 노인이 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개 변인의 설명력은 55.1%이었으며, 이 중 예측력이 가장 큰 변인은 자아존중감이었다.

다음으로 생활적응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의 개인생활적응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 $\beta = .385$ ), 건강상태( $\beta = .238$ ), 의사결정( $\beta = .218$ ), 종교유무( $\beta = .163$ ), 배우자유무( $\beta = .112$ )이었고, 이중 자아존중감이 가장 예측력이 큰 변인이었으며 이들 10개 변인의 설명력은 50.3%이었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의사결정수준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고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개인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가족생활적응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 $\beta = .408$ ), 의사결정( $\beta = .211$ ), 종교유무( $\beta = .148$ ), 거주지역( $\beta = .111$ )이었고 이중 자아존중감이 가장 예측력이 큰 변인이었으며 이들 10개 변인의 설명력은 39.8%이었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의사결정수준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고 아파트거주 노인이 가족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사회생활적응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 $\beta = .392$ ), 한달용돈액수( $\beta = .216$ ), 종교유무( $\beta = .178$ ), 의사결정수준( $\beta = .170$ ), 건강상태( $\beta = .155$ )이었고 이중 자아존중감이 가장 예측력이 큰 변인이었으며 이들 9개 변인의 설명력은 48.1%이었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한달용돈액수가 많을수록, 종교가 있고 의사결정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인이 개인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 배우자, 종교가 있고 학력이

〈표 6〉 노인의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과 가정내 의사결정

설명변수	종속변수		개인생활적응 (n=263)		가족생활적응 (n=266)		사회생활적응 (n=266)		전체생활적응 (n=262)	
	b	β	b	β	b	β	b	β		
성별 <sup>a</sup>	-.068	-.008								
거주지역 <sup>a</sup>			.844	.111*					1.864	.086*
직업유무 <sup>a</sup>	.337	.036	.397	.047	.310	.035	1.091	.046		
배우자유무 <sup>a</sup>	1.076	.112*	.815	.094	-.164	-.018	1.681	.069		
종교유무 <sup>a</sup>	1.533	.163**	1.233	.148**	1.593	.178***	4.247	.178***		
한달용돈액수	.218	.084	.178	.077	.535	.216***	.889	.135**		
건강상태	.897	.238***	-.189	-.057	.554	.155**	1.300	.135**		
용돈만족	.141	.032	.122	.031	.153	.037	.318	.029		
주관적 경제생활수준	.391	.050	.630	.090	.317	.042	1.457	.073		
자아존중감	.320	.385***	.301	.408***	.308	.392***	.917	.435***		
가정내 의사결정	.122	.218***	.106	.211***	.091	.170***	.327	.230***		
Constant	1.120		8.417		4.451		13.748			
R <sup>2</sup>	.503		.398		.481		.551			
F	25.498***		16.874***		26.398***		30.745***			

※ \* p<.05 \*\* p<.01 \*\*\* p<.001

※ a: 가변인-성별: 기준=여자노인 · 비교=남자노인    거주지역: 기준=주택 · 비교=아파트  
 배우자유무: 기준=무 · 비교=유    직업유무: 기준=무 · 비교=유,    종교유무: 기준=무 · 비교=유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생활만족도와 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났다는 김태현(1986, 1994), 오경숙(1990), 이남표(1979), 최혜경(1984)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이 있으며 의사결정권이 높을 때 생활만족도가 증가한다는 한임섭(1987), 송주은(1993)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은 자아존중감 다음으로 노인의 생활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내 의사결정이 높을 경우 생활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정을 중심으로 노인의 의사결정과 생활적응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관련변인이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과 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서 노인의 생활적응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

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수준은 성별, 한달용돈액수, 용돈만족수준, 주관적 경제생활수준, 자아존중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생활적응은 거주지역, 현재직업, 배우자유무, 종교, 학력, 한달용돈액수, 건강상태, 용돈만족수준, 주관적 경제생활수준, 자아존중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셋째,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과 개인생활적응, 가족생활적응, 사회생활적응, 전체생활적응간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으며 이들간에 정적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넷째,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한달용돈액수, 자아존중감으로 여자노인인 경우, 한달용돈액수가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가정내 의사결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노인의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 의사결정수준, 종교유무, 건강상태, 한달 용돈액수, 거주지역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의사결정수준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한달용돈이 많을수록, 아파트거주 노인일 경우 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노인의 성별은 가정내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다음으로 한달 용돈액수라는 경제적 자원을 소유한 경우 노인의 의사결정수준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자아존중감도 이들과 함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생활적응의 경우 기존의 관련변인뿐만 아니라 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도 생활적응의 중요한 변수임을 파악하였다. 노년기에는 일반적인 교제범위의 축소와 함께 관심영역과 접촉영역이 가족과 자녀에게로 집중되므로 가정내 의사결정과 생활적응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된다고 본다.

노부모와 기혼 자녀간에는 부부와 마찬가지로 의사결정행동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가족간의 의사결정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불일치뿐만 아니라 가족과 환경사이의 불일치를 줄이면서 생활에 적응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주요 요인임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노인의 생활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가정관리적 차원에서 노인이 가정내 의사결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의사결정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함은 물론 사회적 차원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의 잠재능력과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다음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가정내 의사결정을 측정하는 척도의 정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부부간의 의사결정행동 연구와 여자노인의 가정내 의사결정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남녀노인에게 알맞도록 영역별로 수정·보완하였다. 그러나 좀더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정교한 척도와

자녀와이 동거유무에 따른 의사결정권의 연구와 이러한 의사결정에 따른 생활적응의 다양한 측정을 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둘째, 본 연구자료는 노인 자신의 설문응답을 기초로 하였으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과장하여 응답할 수 있으며 자신의 주관적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녀와 노인이 함께 응답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의 다양한 설문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노인 자신의 개인이나 가족생활, 사회생활에서 적응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정관리적 차원에서 가정 내에서 노인 자신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하며 사회적 차원에서 급변하는 사회의 내·외적 생활 변화에서의 적응능력을 발전시키고 타인과의 접촉을 통해 상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가족구성원의 공통적인 의미를 나눌 수 있는 생활을 위해 세대간 교육수준이나 가치관의 차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노인교육과 같은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1) 강주령·김명자(1991). 가족관계에 따른 노인 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29권 2호, p195.
- 2) 김수연(1987). 도시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 김명자(1982)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0권 3호.
- 4) 김애련(1990). 노인의 가정내 지위와 역할.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 김윤경(1983). 가정생활의 의사결정유형과 관련변인과의 관계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김윤경·임정민(1983). 가정생활의 의사결정유형과 관련변인과의 관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21권, 제 3호, pp. 115-130.
- 7) 김태현(1981).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 8) 김태현(1986). 노년기의 생활만족도 연구. 성신여

- 대 성신연구논문2집.
- 9) 김태현(1994). 노년학. 교문사.
  - 10) 모선희(1991). 가족내에서 노인의 의사결정권, 한국노년학, 제 11권, 제 1호, pp. 50-60.
  - 11) 박재간 · 임춘식(1983). 노인의 생활실태 및 의식 조사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문제연구소.
  - 12) 박충선(1991). 저동불편 노인의 가족관계와 의·식생활에 관한 연구(제 2보). 대한가정학회지, 제 29권, 제 3호, pp71-83.
  - 13) 서병숙(1991). 노인연구. 서울:교문사.
  - 14) 손양숙(1985).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5) 송주은(1993). 가정경영에 대한 노인의 의사결정권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6) 여윤경(1993). 노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7) 오건작(1991). 도시노인들의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8) 오경숙(1990). 활동중심으로 한 노후적용.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9) 유주희(1993). 도시부부의 부부간 의사소통이 가정생활에서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 윤진(1985). 성인, 노인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 21) 이남표(1979). 한국노인의 심리·사회적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 : 아산문화재단.
  - 22) 이영은(1990). 노인의 성격유형과 생활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3) 이영자(1996).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 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4) 이춘희(1993). 남자노인의 역할활동과 생활만족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5) 임정빈(1988). 가치성향 의사결정영식 및 가정생활 만족-서울시 주부를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6) 임종권, 동세권, 김진숙, 남정자, 유효신(1985). 한국노인의 실태. 한국연구보건의원
  - 27) 최혜경(1984).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가족부양체계를 중심으로 한 인과모형의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8) 한임섭(1987).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제활동과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9) 홍기정(1984). 노인문제와 가정. 국회보, 제 216호, 서울:국회사무처, pp139-146.
  - 30) Clark, Magaret and Barbara Anderson(1967). Culture and Aging, Springfield, Ill. : Charles c. Thomas.
  - 31) Deacon, Ruth E. and Firebaugh, Francille M. (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Allyn and Bacon, INC.
  - 32) Dorfman, Lorraine T. and Hill, Elizabeth A(1986). Rural Housewives and Retirement : Joint Decision Making Matters. Family Relations, Vol. 35, pp. 507-514.
  - 33) Dorfman, Lorraine T. and Heckert, D. Alex(1988). Egalitarianism in Retired Rural Couples : Household Tasks, Decision Making and Leisure Activities. Family Relations, Vol. 37, January, pp.73-78.
  - 34) Edwards, J.N & Klemmack, D.L.(1973), "Correlate of life satisfaction: A reexamination", Journal of Gerontology VOL. 28, 1973, 497-502.
  - 35) Hill, Wayne and Scanzoni, John(1982). An Approach for Assessing Marital Decision-making Process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November, pp.927-941.
  - 36) Kalish, R. Q(1975). Late Adulthood : Perspectives on Human Development. Berkely : Cole Publishing Co.
  - 37) Liang, J.(1982). Sex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J, of Gerontology, vol. 36, NO. 1.
  - 38) McClland, K.A.(1982). Self-Conceptions and Life Satisfaction : Integrating Aged Subculture and Activity Theory. Journal of Gerontology, 36, 723-732.

- 
- 39) Medley, M.L.,(1977). "Marital Adjustment in the Postretirement Years", *The Family Coordinator* (Jan.), 5-10.
- 40) Olson, D. H. Sprenkle & C.S. Russel(1976)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 family type and clinical applications, *Family Process*, Vol. 18.
- 41) Pratt, Clara C., Jones, Laure L., Shib Hwa-Yong, and Walker, Alex J.(1989). *Autonomy and Decision Making Between Single Older Women and Their Caregiving Daughters*. *The Gerontologist*, Vol. 29, no.6, pp792-797.
- 42) Quinn, W.H(1983). Personal and Family Adjustment in Later life :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57-73.
- 43) Rice,A.M and S.M. Tuckerr(1986). *Family Life Managment*.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New York.